



■ 연구원 소식

○ 3월 26일(月) : 주간회의 / 기증도서 수령(정읍)

■ 연구원 소식

○ 의병사 해단식 (3월 22일)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전북지역 의병자료 번역 및 정리사업”의 해단식이 3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사업을 함께 진행한 광복회 이강안 지부장께서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연구원이 있어 해낼 수 있었고 자랑스럽다”**는 말씀 전해주셨고 이후 독립운동가 신문 연재 사업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였습니다.



○ 49차 문화강좌 실시 (3월 24일)

2018년 처음으로 진행된 49차 문화강좌가 “3월 24일(토) 16시”에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문화강좌는 “목마와 숙녀, 그리고 박인환”이라는 책을 통해 박인환 시인의 주요작품인 <목마와 숙녀>를 해석해 낸 저자 “김다연”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꽃놀이 대신 문화의 향기에 취했던 30여명의 참석자는 뒤풀이에서도 끝맺음을 아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 신규 후원회원 가입

: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한명수 흐름출판사 대표님의 추천으로 “김재섭 님”께서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자소개

왕유(王維, 699-759) - “시 속에 그림이 들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불(詩佛)’이라는 칭호를 얻은 자연시인이다. 현존하는 시는 400여 수인데, 그 가운데 3분의 2는 근체시이고, 나머지는 고체시이다. 전원의 풍경과 한적한 정취를 노래했으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노래했다.

■ 작 품

送別(송별)	그대를 보내고
山中相送罷(산중상송파)	산중에서 그대 떠나보내고
日暮掩柴扉(일모엄시비)	날 저물어 사립 닫노라
春草明年綠(춘초명년록)	봄 풀이 내년엔 푸르러지면
王孫歸不歸(왕손귀부귀)	고운 그대 돌아오시려나?

■ 감 상

위의 시는 세상에 널리 애송되는 왕유의 오언절구 「송별(送別)」이다. 은자의 고독과 기다림이 아름답게 직조된 작품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돌아온 쓸쓸한 심정을 단아하게 그려낸 것이 압권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 사용하지 않고 이런 미학을 만들어냈다. 왕유는 흡사 선문답을 하듯 간단한 몇개의 단어만으로 깊고 그윽한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한 시인이었다.

■ 역사속의 오늘

■ 독립 항로를 개척한 비행사, 조선의 별이 되다 - 1930년 4월 2일 ■

안창남은 1901년 3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1911년 미동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명석했다. 휘문의숙(현 휘문중·고)을 중퇴하고 2년이 지난 1917년, 소년 안창남은 서울에서 열린 미국인 아트 스미스의 곡예 비행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강렬했던 순간을 기점으로 일생을 비행기와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 1년 뒤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자동차학교에 입학하여 자동차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아카바네 비행기 제작소를 거쳐 오쿠리 비행학교에 입학하여 비행술을 익히게 되었다.

안창남은 각고의 노력으로 오쿠리 비행학교를 3개월 만에 졸업했습니다. 이는 같이 배우던 일본인 학생들에 비해 월등한 성적이었다. 그는 뛰어난 실력 덕분에 교수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안창남'이라는 이름 석 자가 조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졸업한 해인 1920년 12월이었다. 당시 조선의 대표적 월간지였던 <개벽>에 그의 이야기가 실렸다. 당시 개벽의 도쿄 특파원이었던 소파 방정환은 '조선 비행가 안창남'이란 기사를 써서 그의 존재를 알렸다.

그 후 안창남은 일본 민간 비행사 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쿄-오사카간 왕복 우편비행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여러 경력을 쌓아 더욱 유명해졌다. 마침내 동아일보사 초청으로 안창남 고국 방문 비행이 성사됐다. 1922년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간이비행장. 이날 안창남은 우리나라 항공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비행을 했다. 찬바람이 뽀뽀 부는 날씨에도 이를 보기 위해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당시 경성 인구는 30만 여 명이었다. 삭막한 여의도 벌판에는 사람으로 숲을 이뤘다. 안창남이 탄 비행기는 단발쌍엽의 1인승 '금강호(金剛號)'. 일본 오쿠리 비행학교 소속의 영국제 비행기였다. 금강호는 여의도를 이륙해 하늘로 치솟았다. 비행기는 남산을 돌아 창덕궁 상공을 거쳐 여의도 상공에서 고공비행의 묘기를 선보였다. 당시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준 비행이었다. 세간에서 "떴다 보아라 안창남 비행기"란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안창남은 국민의 영웅이 됐다.

훗날 그는 <개벽>에 '공중에서 본 경성과 인천'이라는 글을 투고했다. 조국의 하늘을 나는 감격과 식민지라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그 글의 첫 장은 다음과 같다.

“京城(경성)의 한울! 京城의 한울! 내가 어떻게 몹시 그리워 했는지 모르는 京城의 한울! 이 한울에 내 몸을 날리울 때 내 몸은 그저 심한 감격에 떨릴 뿐이었습니다. 京城이 아모리 작은 市街(시가)라 합시다. 아모리 보잘 것 없는 도시라 합시다. 그러나 내 고국의 서울이 아닙니까. 우리의 도시가 아니입니까. 장차 크게 넓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도시, 또 그리할 사람이 움죽이고 자라고 잇는 이 京城 그 한울에 비행기가 나르기는 결코 1,2차가 아니었슬 것이나 그 비행은 우리에게 대한 어떤 의미로의 侮辱(모욕), 아니면 어떤 者(자)는 일종 위협의 의미까지를 뵈는 것이었섯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잘하나 못하나 우리끼리가 깃버하고 우리끼리가 반가워하는 중에 우리끼리의 한몸으로 내가 날을 수 잇게 된 것을 나는 더할 수 업시 유쾌히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일본서 비행할 때마다 機頭(기두)를 西天(서천)으로 향하고 보이지도 안는 이 京城을 바라보고 오고 심흔 마음에 가슴을 뛰노이면서 몇번이나 눈물을 지웠는지 아지 못합니다.”

그는 단순한 비행사에 머물지 않았다. 당시 비행사는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보다는 유람 비행, 비행 기술 교육 사업 등으로 높은 소득과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직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런 안락에 머무르지 않고 험난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23년 9월에 관동대지진으로 일본은 큰 혼란에 빠졌다. 도쿄의 오쿠리 비행학교도 파괴되었고 문을 닫았다. 그러자 국내 신문들에는 안창남의 사망설이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이때 그는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실천했다. 1924년 자신의 뛰어난 재능인 비행 기술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중국으로 망명한 것이다. 그는 1925년 1월, 먼저 상해에서 임시정부 요인과 접촉했지만 자금을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비행학교를 설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안창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중국 항일세력과의 매개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전환했다. 1926년 여운형의 권유로 중국 산시성의 군벌인 옌시산(閻錫山)의 휘하에서 항공 중장과 산서비행학교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며 안창남의 독립운동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그는 상하이에 본부를 둔 대한독립공명단에 가입했다. 공명단은 상하이와 만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독립운동을 벌인 단체였다. 그는 1929년에 비행대의 설립을 목표로 국내에 파견된 공명단원 최양옥(崔養玉)·김정련(金正連) 등에게 600원을 제공했다. 당시 매일신보는 <제남(濟南)서 안창남 씨에게 육백 원을 위선(爲先)바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그때 체포된 최양옥도 해방 후 쓴 수기에서 안창남이 공명단의 주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스물아홉의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1930년 4월 2일 중국 산시 비행학교에서 비행 교육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푸르디 푸른 나이였다.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독립을 향한 항로를 개척했지만 후손이 없었다. 그 때문에 그의 독립운동 행적 규명은 100년이 지난 2001년 8월에 이르러서야 공식화되었다.



<해방된 조국 하늘을 꿈꿨던 비행사 안창남>

■ 도농상생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마스크팩”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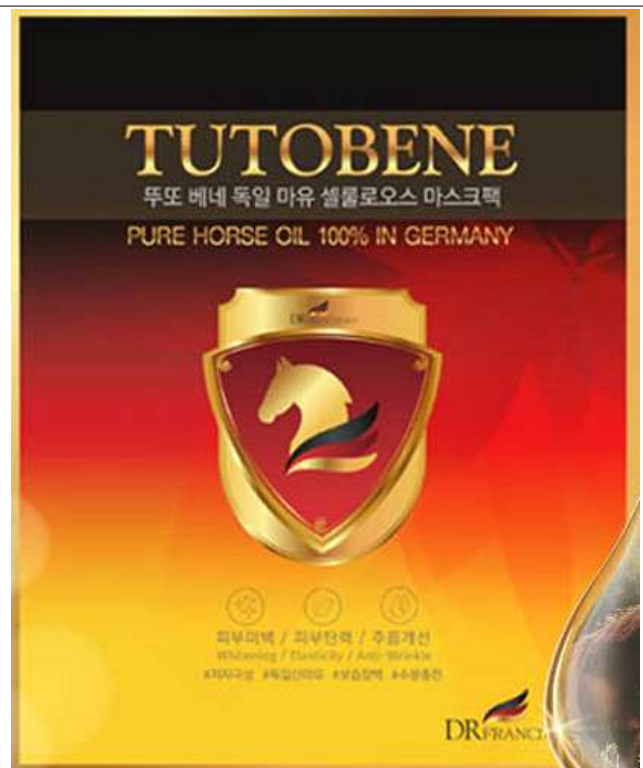
◎ 효 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25g * 5매 >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30g * 5매 >

-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2만 원

◎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나눔푸드 “나누미 홍삼” 일부 제품 가격 인상 안내

♠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나눔푸드” 에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주문하실 때, 반드시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이라고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연 락 처 : 063-433-7017(나눔푸드)

※ 회원이 주문할 경우 총액의 10%를 할인하여 판매하며, 총매출의 10%는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종 류	가 격	비 고
나누미 홍삼 365 (30포*80mg)	65,000원(정상가) 58,500원(회원가)	박스포장
나누미 홍삼 365 (60포*80mg)	100,000원(회원가)	벌크포장
나누미 홍삼 365 (100포*80mg)	150,000원(회원가)	벌크포장

※ 2018년 3월부터 인상된 가격 적용